

11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널뛰기’ 뉴욕 막판 상승 [다우: 8,424.75pt (+ 1.83%)]	뉴욕 주식시장이 호악재의 엇갈림 속에 급등락하다가 장 막판 상승세로 마쳤음. 휴렛팩커드(HP)의 깜짝 실적과 야후의 인수합병(M&A) 기대감이 호재가 되었음. 오전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던 주요 지수는 오후 들어 주택지표 악재를 만나면서 하락권으로 내려앉았으나 장 마감을 30분 남짓 남겨두고 호재에 무게가 실리며 반등에 성공했음.
유럽 증시 반등..HP 호재-에너지주↑	휴렛팩커드(HP)의 깜짝 실적이 반등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 영국 FTSE100 지수는 4,208.55로 전일 대비 1.9%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는 3,217.40으로 1.1% 상승. 독일 DAX30 지수는 4,579.47로 0.5% 상승.
HP-야후 ‘급등’	세계 최대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 HP(HPQ)는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14.5% 뛰었음. HP는 이날 4분기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주당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03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고 이는 팩트셋리서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주당 1달러를 상회한 수준임.
미국 주택건설업 체감경기 ‘사상 최악 행진’	미국 주택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또 사상최저치를 경신했음.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11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가 전월의 14에서 9로 급락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1985년 지수 발표 이후 최저치로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4도 하회한 수준임.
미국 대도시 80% 3분기 집값 ‘하락’-NAR	지난 3분기 미국 대도시중 5분의 4 가량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적으로 주택 판매는 8%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음.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52개 대도시중 120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음. 28개 지역에서는 가격이 올랐고, 4개 지역에서는 변함이 없었음.
미국 생산자물가 ‘사상 최대폭 하락’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음. 경기후퇴와 맞물려 물가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미국 노동부는 10월 PPI(계절조정)가 전월대비 2.8% 급락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947년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으로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6%보다 훨씬 큰 낙폭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유가 소폭 하락 [WTI: \$54.39 (-\$0.56)]	국제 유가가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음.
폴슨 "구제금융, 만병통치약 아니다..자동차 전용 반대"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자동차 등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폴슨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사장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자금을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럽, 미국 자동차 지원 좌시하지 않겠다"	유로존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에 대해 지원에 나서면 우리도 유럽업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
중국, 일본 제치고 최대 美국채 보유	18일 미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 미재무부 채권을 436억 달러나 사들여 전체 국채 보유액 5,850억달러 보유. 이기간 일본은 128억달러어치를 사들이는데 그치며 보유액은 5,732억달러로 증가.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